



누리팜 괴산점: 포용적 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

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제안

Executive Summary - 핵심 제안

"최대 국비 20억 원을 활용, 5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2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'누리팜 괴산' 설립을 제안합니다."

프로젝트

40명의 장애인과 10명의 지원인력을 고용하는 최첨단 스마트팜 표준사업장

기대 효과

- **경제:** 연간 13억 원의 직접 소득 창출
→ 총 20억 원+α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
- **사회:** 인구 감소 대응 및 취약계층 자립 기반 마련
- **행정:** 최소 투자로 국비 확보, 재정 부담(고용부담금)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

결론

단순 복지 사업이 아닌, 괴산의 미래를 위한 **고수익 전략 투자**입니다.

괴산의 위기, 왜 지금이 기회인가?

"누리팜 괴산점은 인구 절벽과 재정 위기라는 괴산의 복합적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."

인구 소멸 위기

- 40개의 안정적 일자리는 인구 유출을 막고,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하는 '경제적 앵커' 역할을 합니다.
- 연 352만 명의 생활인구를 실제 정주인구로 전환할 기회입니다.

재정적 한계

- 재정자립도 9%대의 괴산군이 최소한의 투자로 **최대 20억 원의 국비**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입니다.
- 매년 유출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으로 전환하는 '재정의 재배치' 전략입니다.



최적의 솔루션, 컨소시엄형 모델

"컨소시엄형 모델은 괴산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,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는 검증된 성공 방식입니다."

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

- 무상지원금 최대 **20억 원** (일반형의 2배)
- 법인세 **5년간 감면** (최초 3년 100%, 이후 2년 50%)
- 고용장려금 지속 지원 (중증 1인당 월 최대 90만 원)

모두가 승리하는 구조 (Win-Win-Win)

- 괴산군: 국비 유치, 일자리 창출, ESG 행정 선도
- 참여 기업: 고용부담금 감면, ESG 경영 실천,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 확보
- 지역 사회: 안정적 일자리, 지역 경제 활성화, 공동체 통합

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

"50명의 신규 고용은 연간 13억 원의 직접 소득을 창출하며, 이는 최소 20억 원 이상의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집니다."



1단계: 직접 소득 창출

연 13억 8백만 원

- 장애인 근로자 40명: 연 10억 6백만 원
- 근로지원사 10명(55세 이상 지역고용): 연 3억 2백만 원



2단계: 간접·유발 효과

승수 효과

- 창출된 소득이 괴산 내 식당, 상점 등에서 소비 →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
- 소상공인 소득 증가 → 2차 소비로 이어지는 '경제 선순환' 구조 형성

핵심 가치: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'**고점착성 소득**'을 창출하여 괴산의 경제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.

1개의 일자리가 3명의 '정주인구'를 유입

본 사업은 1명의 장애인 고용으로 구매력 있는 **3인 가구를 유치하는**, 가장 효율적인 인구 위기 대응책입니다. '**이중 소득**' 가구의 이주로 **지역 경제를 즉각 활성화**시킵니다.

- 인구 증대 효과의 극대화 (1:3 효과) 장애인 일자리 1개는 은퇴 부모를 포함한 2~3인 가구의 '**가족 동반 귀촌**'으로 직접 이어집니다.
1. 인구 증대 (1:3 효과) 장애인 일자리 1개가 부모를 동반한 2~3인 가구의 '**가족 동반 귀촌**'으로 이어집니다. 이는 구매력을 갖춘 '**안정적 가구**'의 **순수 전입**을 의미합니다.
 2. 지역 경제 활성화 '**이중 소득**'(자녀 급여 + 부모 연금) 가구는 강력한 소비층입니다. 이들의 유입은 지역 상권 등 내수 경제에 즉각 기여합니다.
 3. 사회적 자본 확충 및 비용 절감 '**활동적 시니어**'(은퇴 부모)는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. 안정된 가족 돌봄 체계는 장기적인 사회 복지 비용을 절감시킵니다.
 4. 괴산군만의 독보적 유인책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최대 염원인 '**자녀의 안정된 자립 기반**'을 제공합니다. 이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, 강력하고 독보적인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.





성공 사례 벤치마킹: 푸르메소셜팜

"국내 1호 푸르메소셜팜의 성공 방정식은 '누리팜 괴산'의 확실한 성공 로드맵을 제시합니다."

01

작은 투자, 거대한 성과

여주시의 **2억 원** 출자가 SK하이닉스 **50억 원** 투자 등 대규모 민간·국비 유치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.

02

성공의 핵심 (Key Success Factor)

안정적 판로 확보: SK하이닉스의 '생산물 전량 구매 약정'이 사업 리스크를 제거했습니다.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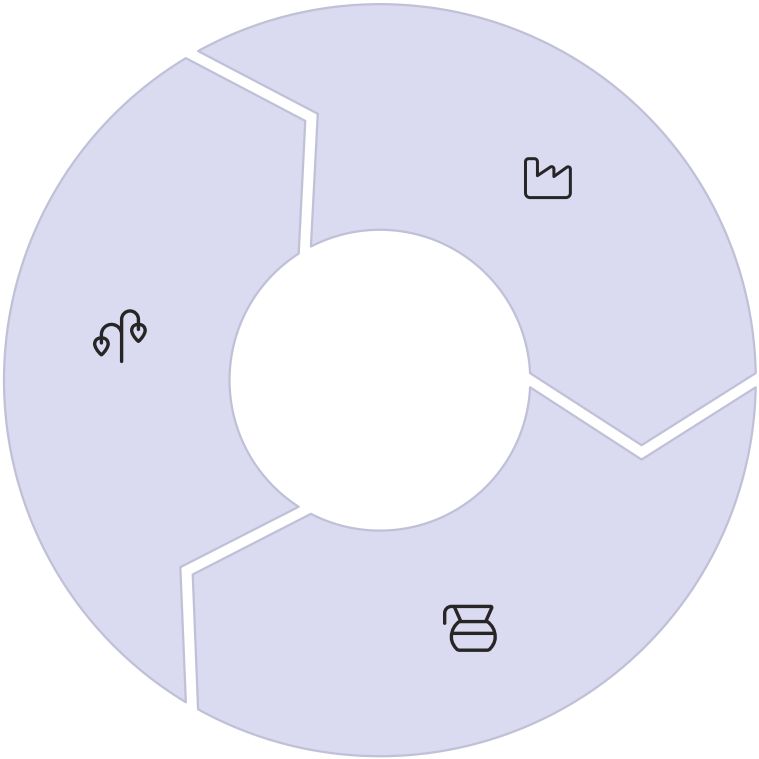
괴산의 기회

푸르메소셜팜을 넘어, 지역 내 다수 기업과 연계하는 '**지역 공급망 통합 모델**'로 발전시켜 더 높은 안정성과 지역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누리팜 괴산의 미래 청사진

"단순 농장을 넘어, 생산-가공-서비스가 결합된 '농업-사회 복합 허브'를 구축하겠습니다."

(1차) 스마트팜
괴산 특화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



(2차) 가공

지역 식품기업과 연계한 가공품(잼, 주스) 생산

(3차) 서비스

'팜투테이블' 카페,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

□ **지속가능성:** 유럽 선진 사례인 '사회적 치유농업' 모델을 도입하여, 고용을 넘어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괴산을 '**치유와 포용의 도시**'로 브랜딩하겠습니다.

파트너십 제안 및 실행 계획

"괴산군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, '누리팜 괴산'이라는 혁신과 포용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제안합니다."

괴산군에 요청하는 역할

1. **재정적 참여:** 국비 유치를 위한 종잣돈(Seed Money) 공동 출자
2. **행정적 지원:**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비 신청 과정 협력
3. **현물 지원:** 사리면 내 사업 부지 확보 지원
4. **사업 촉진:** 관내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독려 및 가교 역할

향후 추진 계획 (Next Steps)

- **1단계 (3개월):** 민관 협력 TF 구성 및 컨소시엄 협약 체결
- **2단계 (이후):** 국비 지원금 신청 및 시설 설계 착수



함께 만들어갈 괴산의 새로운 미래

누리팜 괴산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, 포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입니다.

